

🔇 [사 대통령직 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 >

Q

മ

뉴스홈 | 최신기사

## <월드컵축구> 막내 기성용 '위기의 허정무호 구세주'

**NEWS** 

송고시간 I 2008-09-10 23:16











박성민 기자 기자페이지



(상하이=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축구대표팀 '막내' 기성용(19.FC 서울)이 위기의 허정무호를 수렁에서 건져냈다.

기성용은 10일 밤 중국 상하이 훙커우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북한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B조 1차전에서 0-1로 뒤지던 후반 24분 귀중한 동점포를 뿜어냈다.

후반 19분 북한 홍영조에게 페널티킥 선제골을 내줬을 때만 해도 한국은 위기에 휩싸였다. 수비진이 우왕좌왕하며 골 기회를 계속 허용하며 패색이 짙게 드리웠다.



하지만 선제골을 헌납한 뒤 5분 만에 터진 기성용의 동점골로 한국은 겨우 1-1 동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특히 기성용의 이날 골은 2008 베이징올림픽 8강 진출 실패에 이어 한국 축구에 대해 쏟아질 팬들의 비난과 외면을 조 금이나마 잠재우는 한 방이었다.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득점 장면은 기성용의 골 감각이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이었다.

김남일(빗셀 고베)과 함께 중원에서 1차 수비벽을 쌓는 '더블 볼 란테' 역할을 맡았지만 전방으로 자주 나서며 공격 본능을 내비 쳤던 기성용은 후반 24분 미드필드 왼쪽에서 김두현(웨스트브 롬)이 넣어준 크로스를 아크 부근에서 가슴으로 트래핑한 뒤 뒤 로 넘어지며 강한 오른발 슈팅을 날렸다.

기성용의 발등을 떠난 볼은 견고하게 잠겨 있던 북한 골문 왼쪽 구석으로 빨려들어갔다. 남아공 월드컵 3차예선 6경기에서 한 골도 허용하지 않았던 북한 수문장 리명국이 몸을 던져봤지만 볼은 이미 골그물을 힘차게 흔들고 있었다.

광양제철고 교사인 축구인 출신 아버지 기영옥(51)씨의 영향으로 축구를 시작한 기성용은 고교 시절 호주에 축구유학 을 다녀왔으며 16세 이하 대표팀부터 20세 이하 대표, 최근 올림픽 대표까지 엘리트 코스를 거친 유망주.

터키 출신 명장인 세뇰 귀네슈 감독이 FC 서울 지휘봉을 잡기 시작한 2006년 서울에 입단했고 곧바로 가능성을 인정받아 주전으로 발탁되면서 급성장했다.

작년 3월24일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앞두고 당시 대표팀을 이끌던 핌 베어벡 감독의 부름을 받아 태극마크를 달았던 기성용은 1년이 훌쩍 넘은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요르단과 평가전에서야 A매치 데뷔전을 치를 수 있었다.

당시 텅 비다시피한 관중석을 보고는 "올림픽에서 우리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축구를 계속 성원해주실 수 있도록 월 드컵 최종예선에서 더 열심히 뛰겠다"고 했던 기성용이 자신의 다짐을 실천하는 동시에 두번째 A매치에서 데뷔골을 터 트리며 스타 탄생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hom90@yna.co.kr

관련기사

<월드컵축구> 영록-청용, 허벅지 통증 '조심 또 조심'

<월드컵축구> 허정무호, 세대교체 실험 '성공할까'

-월드컵축구-한국, 최종예선 남북전 또 무승부(종합)

##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9/10 23:16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명상] 곡사포·수송헬가 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된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 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 댓글 많은 뉴스

】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44 찰에 고발

**2**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 66 안 맞아"(종합)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 61 대병원 자원봉사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 56 동재개 예열?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 40 힐 예정"

뭐하고 놀까? #홍→

유튜브채널 열압뉴스











sns **f**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뉴스+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계약사/제휴문의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관련사이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외국어